

윤석열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



5·18 추모탑 앞 묵념으로 참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 헌화·분향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시민들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방문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려야...본질 왜곡 안돼” 오월단체·시민사회단체 “쇼로 그친 가짜 참배” 강력 규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광주를 찾아 자신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또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오월단체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윤 후보의 이날 5·18 묘지 참배를 ‘정치적 쇼’ ‘가짜 사과’라고 규정하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3, 7면〉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40여 년 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루려고 여러분께서 추구하시는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 헌화·분향하려 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 참배광장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후회하는 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회가 문제가 아니다”면서 “발언이 잘못됐거나, 발언으로 상처를 줬다면 거기에 대해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과드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국민,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모탑 앞까지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해 “항의하는 분들의 마음을 심본 이해한다”며 “5월 영령들에 분향하고 참배하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도 많은 분이 협조해주셔서 분향은 못 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다”고 말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요구에 대해서는 “5·18정신은 자유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정신”이라면서 “당연히 헌법 개정 시 헌법에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해 왔

다”고 다시 한 번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5·18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해서도 “5·18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므로 어느 정도 역사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본질을 허위사실과 날조로 왜곡하는 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 5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오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적 쇼로 그친 윤석열의 거짓 참배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오월단체 등 광주공동체가 요구한 진정한 사과의 전제로 요구한 사전 조치에 대한 답변없이 거짓 사과를 마치고 돌아갔다”고 규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당원들을 만나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말해 전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사흘 뒤 유감을 표명하고 송구하다는 뜻도 밝혔지만, 캠프 실무진이 윤 후보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서 더 큰 논란을 빚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장동,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 윤석열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할”

이재명 민주 대선후보 관훈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일 아란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지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검을 받아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윤 전 총장 본인, 가족의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엄정하다



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실제에 접근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선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 경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는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의 ‘매표 논란’에 대해 “돈 10만~20만 원을 주면 돈 준 쪽에 몰려 썩는다는 것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처럼 50조 원을 전부 소상공인 현금지원에 쓰지는 취지라면 재정 정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데 그러시려면 국민의힘 정당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여자프로배구팀 AI페퍼스 ‘창단 첫 승’

승점 4점 ... 1라운드 6위

광주 여자프로배구팀 AI페퍼스가 시즌 1라운드 6경기만에 ‘창단 첫 승’을 올렸다.

〈관련 기사 18면〉

김형실 감독이 이끄는 AI페퍼스는 지난 9일 수원 화성실내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시즌 V리그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을 세트스코어 3-1(25-21, 25-21, 22-25, 25-23)로 누르고 첫 승을 신고했다.

AI페퍼스는 1·2세트를 내리 4점차로 따내며 여유 있게 앞서갔다.

3세트부터는 집중력이 흐려진 모습을 보였다. 4

세트에서는 7-11까지 밀리며 위기를 맞았지만, 최민지·하혜진의 서브에이스, 엘리자벳의 오픈 공격으로 분위기를 뒤집어 25-23 역전극을 펼쳤다.

‘주포’ 엘리자벳은 39득점(공격 성공률 52.24%)을 기록하며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한비도 부진을 털어내고 13득점(공격 성공률 44.83%)을 올렸으며, 박경현도 8득점(공격 성공률 44.44%)으로 활약했다.

AI페퍼스는 이번 승리로 승점 3점을 획득해 시즌 총 승점 4점, 6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AI페퍼스는 지난 9월 30일 여자프로배구 7번째 구단으로 창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 짝을 사람이 없다’ ▶2면

SNS 타고 광주·전남 마약사범 크게 늘었다 ▶6면

큐레이터 문희영 ‘수잔 발라동 ...’ 폐내 ▶16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

광주 프리지 페스티벌

광장형

2021년 11. 12(금) - 14(일)

5.18민주광장 일대 등

※ 당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문화재단

지구의 문화유산
시민의 프리지

100
Gwangju Cultural Foundation
광주문화재단 10주년

광주 프리지 페스티벌